

1. 수원 엄마의 집 안 / 낮 / 며칠 전

남루하게 좁은 빌라 거실,

시어머니 말자에게 곱게 짠 청자색 보자기 꾸러미를 건네는 미유.

말자 (기대) 어머니! 아가, 이게 뭐냐?
미유 별 건 아니구요. 어머님 지난 1년 동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.
말자 (잔뜩 기대) 그니까 뭔데? 인삼? 홍삼? (인상 팍 쓰며) ... 수삼?
수원 (창피한듯) 엄마...
미유 (당황) 아... 그런 건 아니구요... 전에 어머님이 차 좋아하신다 그러셔서...
말자 (확 목소리 갈라진다) 이잉? 차??? 녹차?
수원 (다급한 표정) 엄마, 그거 비싼 거야. 미유가 시내 백화점까지 가서 사 온 거야.
말자 (떨떠름) ...으유 고맙다. (자기도 모르게 혼잣말) 난 또...
미유 (당황)
수원 (괴로운 표정)
말자 (심드렁하게 선물 보며) 그래, 니들 결혼 1주년으로 어디 간다고? 차 뭐?

괴로워하던 수원은 화제를 돌릴 기회가 생겨 곧바로 대답한다.

수원 (다급하게) 차박. 자동차 캠핑.

살짝 눈치 살피는 미유.

2. 차 밖 + 차 안 / 밤

정체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수원의 넓고 오래된 국산 SUV 차.

(2008년식 현대 쏘타페 흰색)

피곤해 보이는 미유가 차창 밖 한강을 멍하게 보고 있다.

운전하다 그런 미유를 보는 수원.

수원 ... 그러게 가지 말자니까 ...

미유 ...
수원 ... 미안해.
미유 아냐. 어머님 흥삼 되게 좋아하시나보다. 담엔 흥삼 사 가지 뭐.
수원 (한숨) ... 미안해 ...
미유 왜 자꾸 미안하대? 괜찮다니까.
수원 이해해줘 미유야.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래.
자식이라곤 나 하난데 내가 잘 못챙겨드려서 자기한테 더 그러시는 것 같아.
미유 어, 당연하지... 어머님 보험일 그만 두셨어?
수원 어... 자기 덕에 보험왕도 해봤다고 더는 원 없으시다네.
지난달에 관두셨대.
미유 (미소) 잘하셨네...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야지...
수원 (미안하면서 고마운, 복합적인 표정) ...

미유는 창문 열고 바람을 쐬다. 그때 징~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. 수원의 전화다.
수원은 살짝 핸드폰을 들어 본다. 폰을 확인하고 약간 근심스럽게 전화를 받는다.
미유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전화기 볼륨을 줄이는 수원.

<INTERCUT 집에서 전화를 하는 말자>

말자 아들, 마포가 그렇게 교통이 좋았던데.
... 니 동생 녀석 나오면 방 한 칸이라도 내줘야지.. (F)

말자의 펼쳐져 있는 장지갑 안에 보이는 남자아이 둘의 사진. INS

수원 알았어요. 지금 운전 중이라서..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

다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작게 한숨 쉬는 수원.
미유는 못 들은 척 한강 보며 물멍 중이다.